

현안^과 과제

-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서비스 산업 진입 OECD 평균보다 크게 어렵다



Executive Summary

□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서비스 산업 진입 OECD 평균보다 크게 어렵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며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FDI 순유입액 평균치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2012년 기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비중은 한국 12.7%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OECD 평균이 GDP 대비 37%인데 비해 한국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FDI가 특히 저조한 실정이다.

OECD 외국인투자 규제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한국의 FDI 규제 지수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FDI 규제 지수는 0.143으로 OECD 평균 0.079보다 높게 나타났고, 독일은 0.023, 영국은 0.061, 미국은 0.089, 일본은 0.265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외국인투자(FDI) 규제 지수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의 FDI 규제 지수가 OECD 평균은 0.13인데 반해, 한국은 0.25로서 OECD 평균보다 제한적인 편이며, 일본은 1.0으로서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한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고, 수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산업의 FDI 규제 지수를 비교해보니,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OECD 평균이 0.04이고 한국은 0.06으로서 대단히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차 산업 중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규제가 없는 반면, 발전 및 송배전에 대한 규제 수준은 가장 높다. 한국의 3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0.16으로 1차 산업(0.25)보다는 낮지만 2차 산업(0.06)보다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OECD 평균 0.09, 일본 0.13, 미국 0.09, 영국 0.05, 독일 0.0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3차 산업을 교통, 미디어, 통신, 금융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은 일본이 규제 정도가 가장 높고, 미디어와 통신, 금융 서비스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으로 인해 3차 산업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과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운영 및 경영상의 제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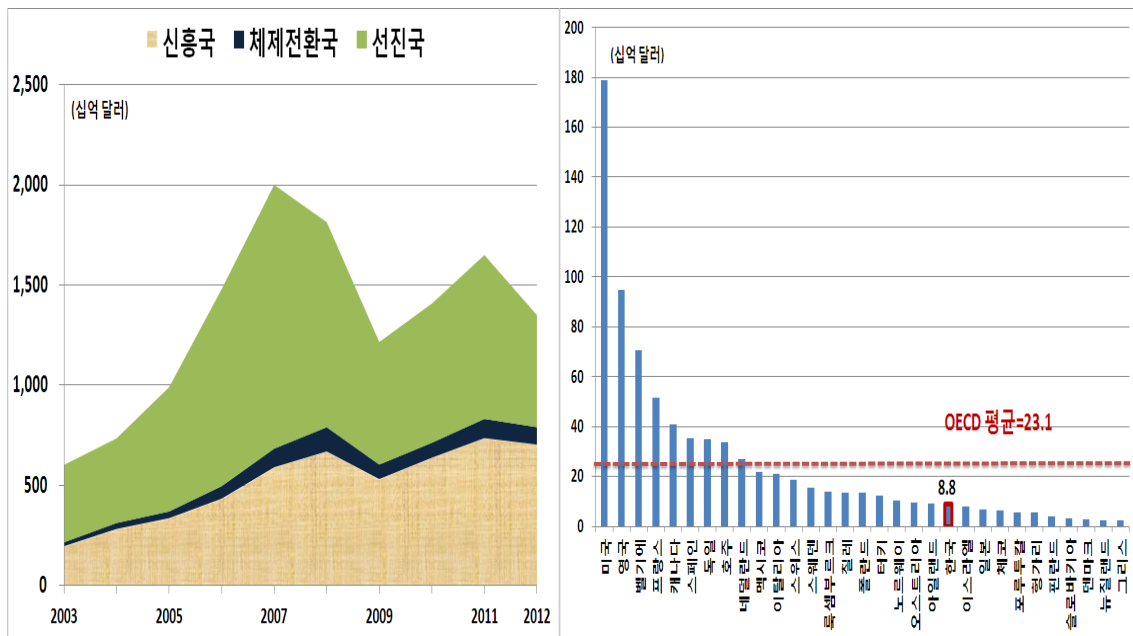
위와 같이 FDI 관련 규제 측면에서, 한국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형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커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외국인직접투자(FDI)

- (FDI 순유입액 현황) 세계 총 FDI 순유입액중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고,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¹⁾ 순유입액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 세계 총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FDI inflow)²⁾ 중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냄
 - 2012년 기준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이 7,028억 달러, 체제 전환국은 874억 달러, 선진국은 5,607억 달러를 나타냄
 - 지난 10년간 (2003-2012년) FDI 순유입액 연평균치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음
 - OECD 국가의 지난 10년간 FDI 순유입액 연평균치는 231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88억 달러에 그침

< 세계 총 FDI 순유입액 추이 >

< OECD 국가별 연평균 FDI 순유입액 >



자료 :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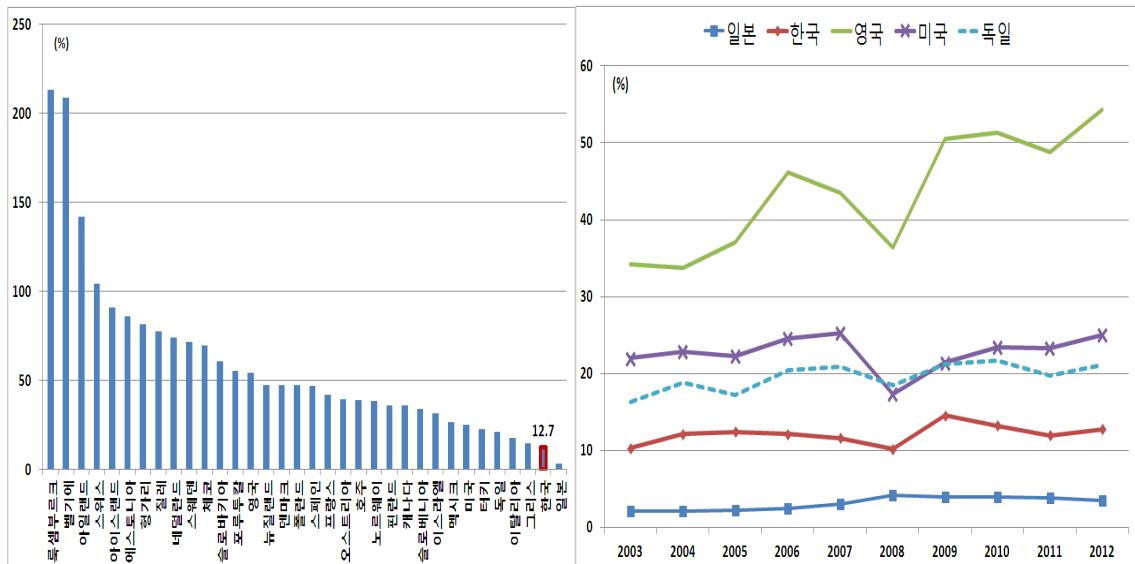
자료 : UNCTAD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작성
주 : 2003-2012년 10년간 연평균 FDI 순유입액 기준

- 1)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낮아 직접투자는 유출초를 지속적으로 기록함
- 2) FDI 순유입액(FDI inflow)은 '일정기간 동안의 FDI 유입액 - FDI 회수액 +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재투자(reinvested earnings)'로 계산하며, 수익재투자는 외투기업의 분배되지 않은 수익금(잉여금)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의미 (산업통상자원부, UNCTAD 정의 활용)

○ (경제규모 대비 FDI 현황) 한국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³⁾

-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FDI inward stock)⁴⁾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보다는 높으나, 독일, 영국, 미국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 2012년 기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스톡 비중은 한국 12.7%, 독일 21.1%, 영국 54.3%, 미국 25.0%, 일본 3.5%를 나타냄
- 각국의 경제규모와 FDI 유입잔액을 비교해 본 결과, 영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이 경제 규모보다 FDI 유입잔액 규모가 작게 나타났지만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경제규모 대비 FDI 유입잔액이 가장 작게 나타남
 -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인 반면, 세계 총 FDI 유입잔액에서 한국의 FDI 유입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65%에 불과함⁵⁾

< OECD 국가의 FDI유입잔액/GDP 비중⁶⁾ > < 주요국의 FDI유입잔액/GDP 비중 추이 >



자료 : UNCTAD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작성 자료 : UNCTAD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작성
주 : 2012년 기준

- 3)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OECD 평균이 GDP 대비 37%인데 비해 한국은 6%에 불과함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
- 4) FDI 유입 잔액(FDI inward stock)은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및 유보액과 기업 간 대출액 등의 총합계를 나타내는데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낼 때는 FDI 유입 잔액을 기준으로 함 (산업통산자원부, UNCTAD 정의 활용)
- 5) 별첨 <표 2>를 참고
- 6)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잔액 비중을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가장 낮고 그 다음 한국으로 나타나 한국이 2번째로 낮게 나타남.

<참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제외 및 제한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을 원칙적으로 하고, '제한업종'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공공행정,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29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을 두는 업종으로 구분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가 허용됨

< 외국인투자 제외 및 제한업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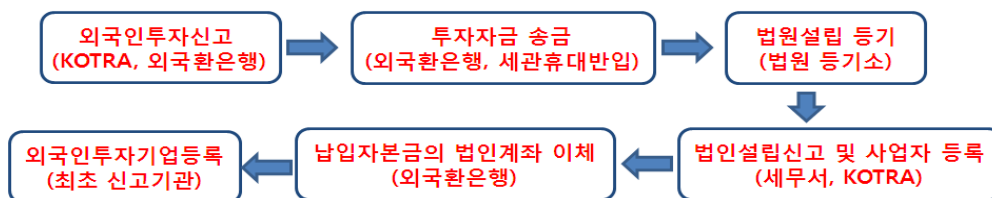
제외업종 (60개)	제한업종(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 관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입법, 사법, 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유아, 초,중,고등,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교육 기관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전문가, 환경운동, 정치, 노동운동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육우 사육법 및 연근해 어업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및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육류 도매업 - 내항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공운송사업 -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라디오 및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 유선 방송업, 위성 및 뉴스 방송업 - 유무선·위성 통신업 및 기타 전기 통신업 - 국내은행

자료 : KOTRA, INVEST KOREA

주 : 2013년 5월 기준

-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 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이루어 짐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2개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나머지는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함

< 외국인투자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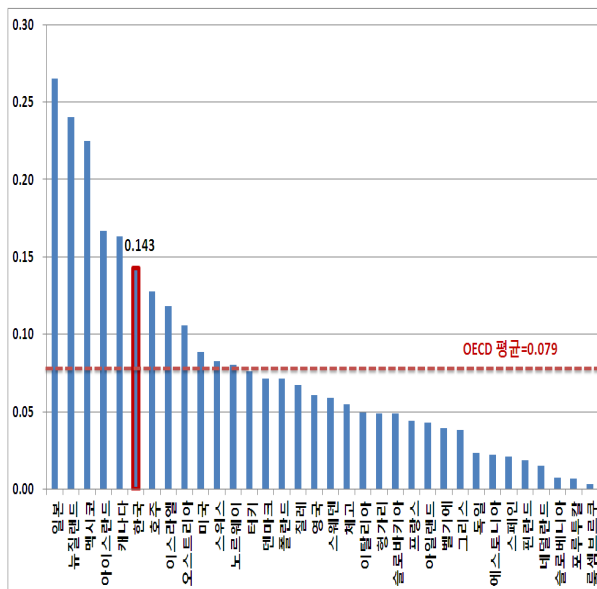
자료 : KOTRA, INVEST KOREA

7) 업종별 자세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기준은 별첨 <표 1>을 참고

2. 외국인직접투자(FDI)⁸⁾ 규제 국제 비교

- 한국의 FDI 규제 지수⁹⁾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FDI 규제지수와 FDI 유입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OECD 국가 중 FDI 규제 지수가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은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FDI 규제 지수는 0.143으로 OECD 평균 0.079보다 높게 나타남
 - 일본은 0.26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미국은 0.089, 영국은 0.061, 독일은 0.023으로 나타남
 - FDI 규제 정도와 GDP 대비 FDI 유입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FDI 규제 정도가 높으면 GDP 대비 FDI 유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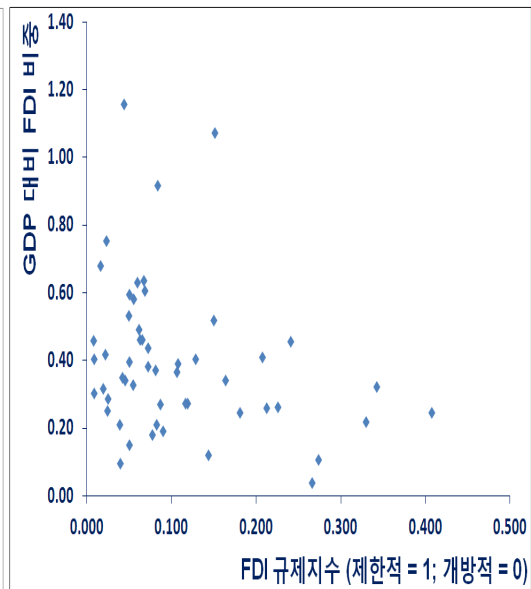
< 국가별 FDI 규제 지수 >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1) 0=개방적, 1=제한적
2) 2012년 기준

< FDI와 FDI 규제의 상관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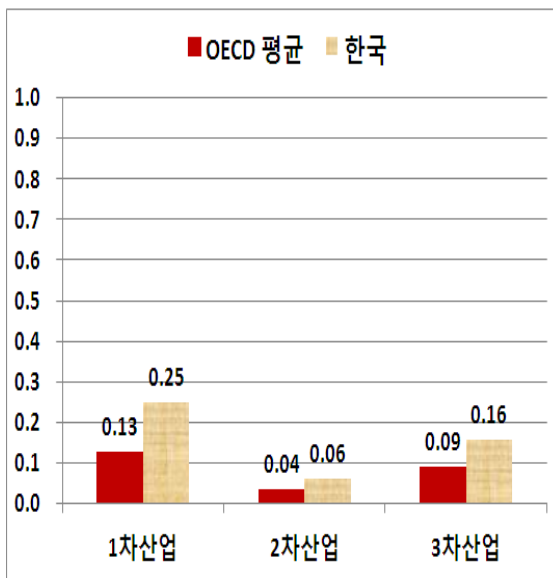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1) GDP 대비 FDI 비중은 FDI 유입 스톡 기준
2) 2012년 기준

- 8) 투자 관련 규제, 노동시장 규제, 지적 재산권 보호, 경영 활동 지원, 교육, 경제성장률, 실질 환율, 경제규모 대비 수출 비중,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침 (Elif Arbatli, 2011, "Economic Policies and FDI In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IMF)
- 9) OECD FDI 규제 지수(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는 OECD 회원 국가와 13개국의 비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소유 제한 (limitations on foreign ownership), 인허가 절차 제한 (screening or notification procedures), 임원(key personnel)의 국적 제한 등 경영상 제한 (management restrictions), 운영상의 제한 (operational restrictions) 등 FDI를 제한하는 요건들을 조사하여 그 정도를 지수화한 결과임. 경영 및 운영상의 제한 안에는 이사회 구성 제한 (Board of directors/Managers), 인적 이동 제한(Movement of people), 국산품 부품 사용 부과 (Input and Operational Restrictions) 등의 다양한 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세부 지수를 공개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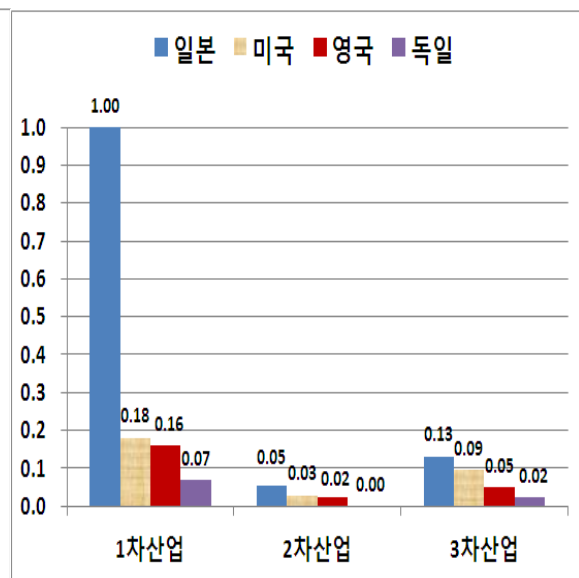
- 한국의 FDI 규제 정도는 OECD 선진국보다 모든 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2차 산업은 개방적임
 - OECD 국가 평균과 FDI 규제지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차 산업은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지만 절대적으로 매우 개방적이며, 3차 산업은 OECD 국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고 2차 산업에 비해서도 규제 수준이 높음
 - 한국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더 까다로워 규제지수가 높게 나타남
 - 특히 3차 산업의 경우, 한국은 소유 지분 제한 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경영상 및 운영상의 제한이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존재하여, 규제 정도가 OECD 국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일본, 미국, 영국, 독일도 식량 공급 안보차원에서 1차 산업에 대한 규제가 2차 및 3차 산업보다 높게 나타남
 - 미국, 영국, 독일은 2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OECD 평균보다 더 개방적이고, 3차 산업은 영국, 독일이 OECD 평균보다 더 개방적으로 나타남

< 한국의 산업별 FDI 규제 지수 >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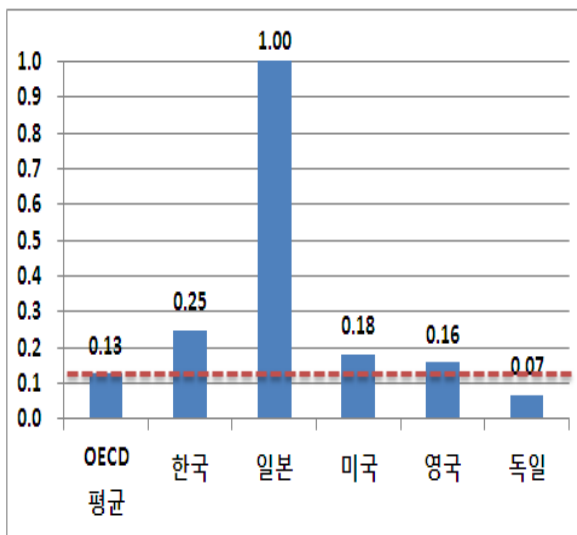
< 주요국의 산업별 FDI 규제 지수 >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의 한국 FDI 규제는 OECD 평균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편임
 - 한국은 1차 산업 기준 FDI 규제 지수가 일본의 1/4 수준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1차 산업 기준 FDI 규제 지수가 OECD 평균은 0.13인데 비해서 한국은 0.25, 일본은 1.0, 미국은 0.18, 영국은 0.16, 독일은 0.07을 기록해 독일을 제외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모두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음
 - 1차 산업을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니, 농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한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고, 수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 기준의 FDI 규제 지수가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일본이 농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규제가 한국에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임
 - 1차 산업을 제외하면, 전체 산업 기준의 FDI 규제 지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남

< 1차 산업 FDI 규제 지수 >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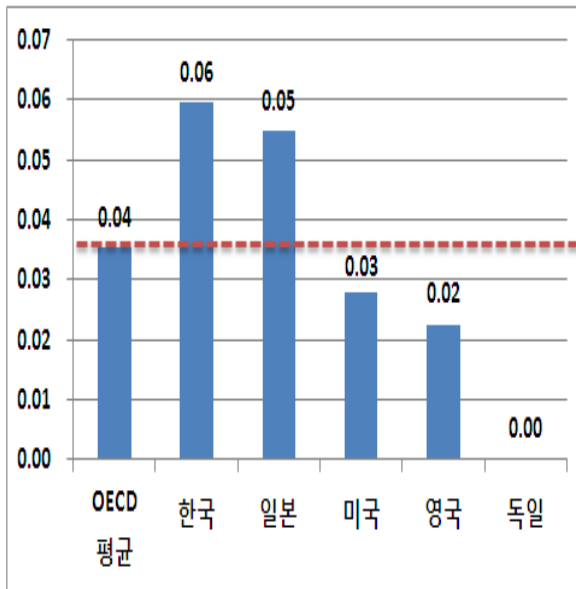
< 1차 산업별 FDI 규제 지수 >

	농업	임업	수산업
OECD 평균	0.09	0.07	0.28
한국	0.50	0.00	0.50
일본	1.00	1.00	1.00
미국	0.00	0.00	0.63
영국	0.02	0.02	0.57
독일	0.00	0.00	0.28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 (2차 산업) 한국의 2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OECD 평균과 일본에 비해서는 높지만, 절대적으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개방적임
 - 2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고 독일은 2차 산업 FDI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한국 0.06, 일본 0.05로 OECD 평균 0.04보다 높은 수준이고 미국 0.03, 영국 0.02로 나타남
 - 2차 산업별 FDI 규제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발전 및 송배전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임
 - 한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FDI 규제 지수는 0을 기록해 규제가 없이 개방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소유 지분 제한으로 인해 발전 및 송배전 FDI 규제 지수는 0.42를 기록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보다 높게 나타남
 - 제조업 FDI 규제 지수가 0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미국, 독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0.08, 영국은 0.02를 나타냄

< 2차 산업 FDI 규제 지수 >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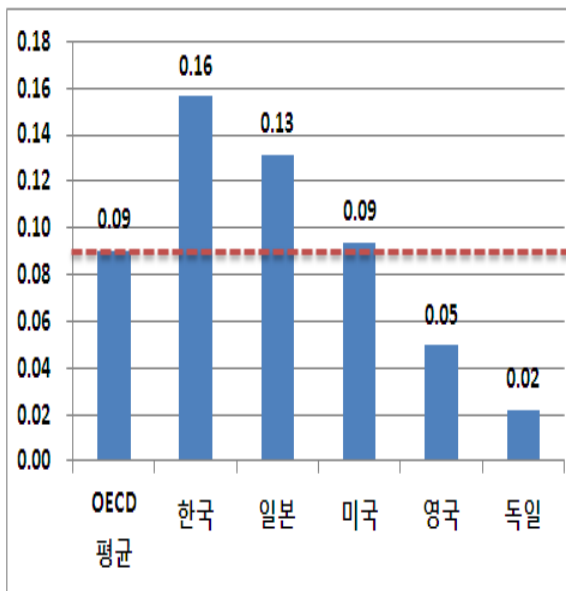
< 2차 산업별 FDI 규제 지수 >

	제조업	전력 발전 및 송배전	건설업
OECD 평균	0.02	0.12	0.02
한국	0.00	0.42	0.00
일본	0.08	0.00	0.00
미국	0.00	0.20	0.00
영국	0.02	0.02	0.02
독일	0.00	0.00	0.00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 (3차 산업) 3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디어와 통신, 금융서비스의 경우 특히 높게 나타남
 - 3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1.8배 높음
 - 3차 산업 FDI 규제 지수는 한국은 0.16로 일본 0.13, 미국 0.09, 영국 0.05, 독일 0.02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세부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은 일본이 규제 정도가 가장 높고, 미디어와 통신, 금융 서비스는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 부문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일본, 미국, 한국, 독일, 영국 순으로 나타나고 경영상의 제한은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나 한국은 일본, 미국 다음으로 규제가 높음
 - 미디어 부문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규제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고, 독일과 영국은 운영상의 규제가 약간 있음
 - 통신 부문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규제는 한국이 가장 높고 일본은 소유 지분과 운영상의 제한, 미국은 인허가 절차 및 운영상의 제한이 약간 있음
 - 한국의 금융 서비스 부문 FDI 규제는 절대적으로 낮지만, 외국인 소유 지분과 운영상의 제한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 3차 산업 FDI 규제 지수 >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 3차 산업별 FDI 규제 지수 >

	교통	호텔 및 식당	미디어	통신	금융 서비스	사업 서비스
OECD 평균	0.23	0.02	0.17	0.11	0.03	0.07
한국	0.51	0.00	0.56	0.50	0.05	0.00
일본	0.67	0.00	0.20	0.48	0.00	0.00
미국	0.55	0.00	0.25	0.11	0.04	0.00
영국	0.11	0.02	0.25	0.02	0.02	0.02
독일	0.20	0.00	0.03	0.00	0.01	0.00

자료 :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주 : 0=개방적, 1=제한적

3. 시사점

- 한국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형 고용을 창출해야 함
 -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커서 서비스 산업 발전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¹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이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외국인직접투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별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산업발전 단계에 맞는 투자자를 유치
 - 우리나라 내수시장, 산업구조와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종과 투자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유치¹¹⁾함
 - ‘업종별 차별화’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규제완화와 투자환경의 개선¹²⁾이 지속적으로 필요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술(High-End) 및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투자 유치로 기술 이전 효과를 제고 **HRI**

경제연구본부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 10) 현행법은 손자회사(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가져야만 함.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중.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11)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전략적 업종과 투자자를 선별하여 유인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음(인베스트코리아,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 2006)
 - 12) 투자유치 선진국들(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세제감면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 운영 보다는 발달된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편리한 세관, 우수한 금융시스템 등 투자환경 자체가 유인으로 작용함

< 별첨 >

< 표 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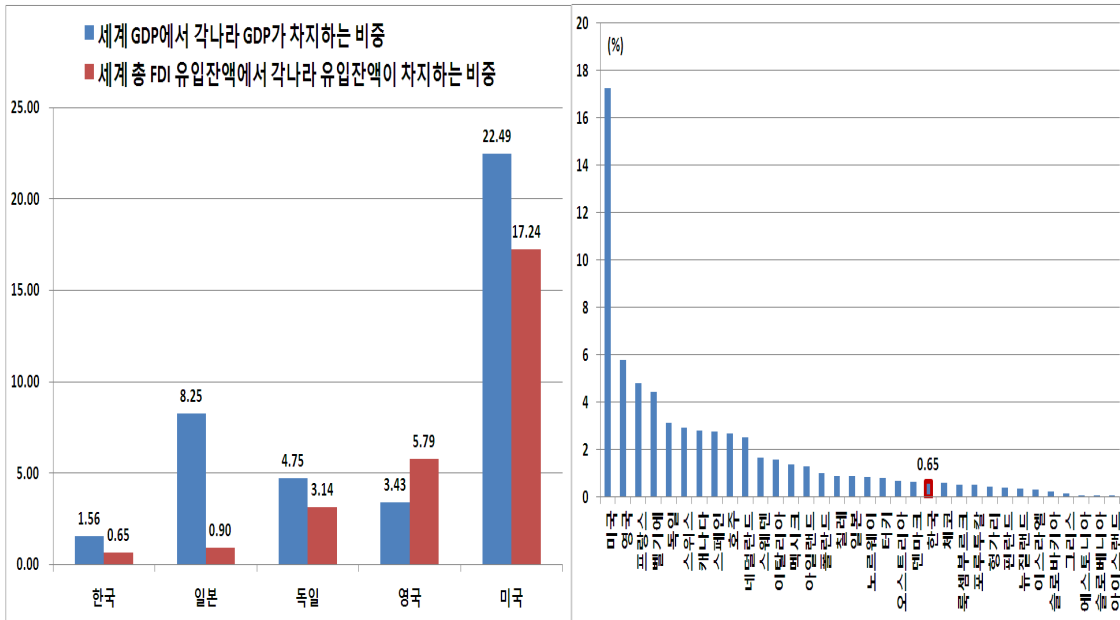
업종명	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재배 및 보리 재배 제외
육우 사육법 및 연근해 어법 연근해 어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및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합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 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수력·화력 및 기타 발전업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 합계는 국내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 및 배전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제외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내항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한 경우만 허용,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국제·국내·소형항공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라디오 및 지상파방송업	미개방
프로그램 공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유선·무선·위성 통신업 및 기타 전기 통신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¹³⁾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주식에 한하며, DR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등가물 및 출자지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자료 : KOTRA, INVEST KOREA

주 : 2013년 5월 기준

13)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20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인 법인

< 표 2. 경제 규모와 FDI 유입잔액 > < 표 3. FDI유입잔액/세계 FDI 유입잔액 비중 >



자료 : UNCTAD, IMF
주 : 2012년 기준

자료 : UNCTAD
주 : 2012년 기준

<참고문헌>

- 1) “외국인투자 부진과 활성화 과제,”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0. 10.
- 2)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OECD, 2012
- 3) Koyama, T. and S. S. Golub, “OECD’s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Revision and Extension to more Economies,” OECD Publishing, 2006.
- 4) Nicolas, F., S. Thomsen and M. Bang, “Lessons from Investment Policy Reform in Korea”,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OECD Publishing, 2013. 2.
- 5) Elif Arbatli, “Economic Policies and FDI In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IMF, 2011
- 6) “우리나라 FDI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7
- 7)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8)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2